

주일에배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 (1부) 8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7시
오전 (4부) 10시
오전 (5부) 12시
오전 (6부) 1시30분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12월 22일 (제721호)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12시
오전 (4부) 2시
오전 (5부) 7시30분
오전 (6부) 8시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29년의 세월!

여보게, 친구!

자네도 예수 제자 되려거든
돌아갈 수 없는 길로 알고 오시게나
호랑이 잡으러 오는 분이
노루에 관심이 있다면 오지 마시게나
이곳은 노루가 없대네
범과 싸워 이기는 강인한 훈련뿐이지,
노루 사슴과 즐길 시간 없대네
천에 하나 그런 맘이 있거든
다른 곳 찾아 즐기시게

여보게, 친구!

이곳은 도라지 캐는 곳이 아니야
산삼 찾아 죽을 자 살릴 자,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릴 자만 오시게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 갈렙처럼
본토 아비 쳐자 뒤로 하고
사막에 목말라 아우성치는 인생을
오아시스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할 자 찾는 곳이 이 곳이라네
깊이 생각하계나, 주님의 종이 되려면

어언 29년, 지나보니

기다림이란 아름다운 단어가 항상 내 마음을 설레게 했지
그것은 어머니 젖가슴처럼
포근함과 희망과 꿈을 주는 것들이었네
요셉이 기다림의 꿈이 있기에 참고
피할 수 없는 길을 적응하며 자신을 위로했듯이
나 역시 29년을 피할 수 없으면 적응하자 위로했네
요셉은 파렴치한 늑미란 누명을쓰고도
옥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멋진 지난날의 꿈을 믿고
기다림이란 친구와 동행했지
나 역시 환난과 핍박과 모함 속에 참고 이길 수 있었던 건
그 옛날 약속의 꿈이 있었기에
기다림이란 친구와 동행할 수 있었네

여보게, 친구!

반드시 새벽은 온다네, 좌절하지 말게
난 터널을 통과했을 뿐, 동굴에 갇힌 작은 없네
기다림이란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며
꿈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희열에 찬 찬미라네
자네는 어떤 기다림이 자네를 맞이할 것 같나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으나
우리는 해명과 변명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대네
종은 종일뿐이야, 의지가 없지
결과와 책임은 주인이 지지 않겠나

여보게, 친구!

핑계는 자신을 속여 거짓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변명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기 위한 구걸이니
우리 어찌 조작하게 살아남으려고
불무의 길을 가겠나
대장부답게 살아보세, 남은 여생은

여보게, 친구!

난 29년을 이 말씀 잡고 살아왔네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느니라(눅9:24)
너는 핑계와 변명을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가라(눅14: 21)
그런데 자네는 어찌하여 변명과 핑계의 친구가 되려하시나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온대도 예수는 증거 되야 함은
병사가 죽는다고 항복하면 백성은 노예가 되기 때문이야
순교가 무서워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목숨 걸고 외치고 달리는 걸세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
결과가 과정을 대변해 줄 거야
무엇이고 심은 대로 걷는 것이 만고의 진리라네
오늘의 나와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이라네

여보게, 친구!

세상은 자네를 미워하나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고
늘 자네와 함께 일하고 계신대네, 속지 말게
우리 주님 편에 서서
편안하길 거꾸하고 달려보세
자네가 그렇게 고대하고 그리던
주님의 입맞춤과 면류관이 자네를 기다릴 걸세

2013. 12월 22일

목회 29주년을 맞이하여 朋友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2:35~40)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의 자세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이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열령똥똥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자의 일에 인색하고, 대충하시느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이뵙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일주의요, 하나님 우선이요,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9장 13절을 통해 “아람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제사 드리는 것을 반복스럽게 생각하고, 또 도적질한 물건이나 저는 것, 병든 것을 현물로 드

가납하겠느냐”(말1:6~8).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자신에게는 한없이 후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들, 하나님께 동냥하듯 연보하는 자들, 영화관람하듯 예배에 겨우 참석하여 관망하고 평가하는 자들, 목사 눈도장이나 찍으려고 봉사하는 자들, 교회 와서 어깨 찰름이나 하는 자들, 제 할 일 다 하고 자투리 시간이나 하나님께 인심 쓰듯 하는 자들,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것들을 가납하겠느냐?”

여러분, 이 소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시며, 가

다. 험박은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경고는 살리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당신을 무시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고(요4:24),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며(마6:33), 직분을 받은 자는 부족한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충성되어야 해야 하며(딤후1:12),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음을 낳은 과부의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고후9:7). 또한 봉사는

누가 알아주건 말건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25:21). 그리

고 주의 종

들은 하

나 님

의



양

무리를

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좃아 자원함으로 하

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분이 되어야 합니다(벧전 5:2~3). 또한 교회 안에서 보면 지식인들이나 권력층, 재력가에 대해 혐오의 눈빛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저래?’, ‘배웠으면 다야?’ 하면서 그들을 적대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물론 있는 자나 배운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무시하고 안하무인(下無人)격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만이요. 그런 자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우선 삼고, 그를 중시 삼아 세계를, 인류를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

들을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22:16~17).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면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

또한 비록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의 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 짓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고 하였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빌2:9~10),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마28:18).

전(前)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Why not the best?)’라는 저서에서 “1966년 주지사로 입후보한 후 악수를 나눈 사람은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만난 사람은 약 30만 명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만난 사람은 14년 동안 겨우 140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명성이 대통령 시절보다 높아졌습니다.

당신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당신이 가진 달란트를, 당신의 자녀 중 가장 잘 나고 똑똑한 자녀를, 당신이 가장 건강하고 열정 있는 시간을, 당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려보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겠습니까? 사렘다 과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마지막으로 부득불 자량하자면, 저는 “본토, 아내,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뒤로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눅14:26)는 말씀에 순종하며 제 목숨까지도 주님에게 아낌없이 맡겼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 저와 예수살렘 교단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할렘루야!

사랑받기 원하면 최고의 사랑을 받으라

리는 등,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듯이, 오늘날 이초석 목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 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야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나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회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난하 게도 하 시고 부하 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 이기도 하시는 분인데 말입니

다(삼상2:6~7).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기만하며,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한 김정은에게 밋보여도 바로 처형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찌 살아남기를 바랍니까? 잠언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뜻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치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잠1:26~30). 또한 말라기서를 통해 네 얼굴에 풍질을 해버린다고 경고하셨습니까(말2:3).

이런 험박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입니

::객원칼럼::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목사님 29주년에 앞서 23년을 옆에서 보좌한 사람으로서 내가 본 목사님을 말하고 싶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 말씀은 목사님의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이며,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는 비결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991년경 처음 교회 사무실에 나왔을 때, 나는 참 희한한 소리를 들었다. 목사님이 계시다는 방에서 “워랄라, 워랄라” 하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소리라고 했다. 자세히 들어보니 “와라까라 썬드라바비디아-워랄라”의 소리가 그렇게 들렸던 것 같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까지도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를 다니며 보아도 그 기도 소리는 변함이 없다. 하루는 그 뜻이 무엇이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란 뜻이란다.

집회에 나가보면 목사님은 일찍 주무시지도 않건만,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요, 새벽 같이 이른 시간에도 그 기도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저녁 집회를 앞두고도 또 기도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집회 때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의 힘임을 알 수 있다.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면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방처럼 깨끗하다. 침대 시트조차 건지 않고 주무시는지 침대와 침대 밑에 깔린 겹쳐진 타월에 선명하게 찍힌 두 무릎 자국이 보일 뿐이다. 목사님의 오늘은 바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닮아보려고 흉내를 낸다. 환웃을 입어보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산기도도 기본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야말로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에서 이겨야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존경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점이다. 사람인지라 그동안 왜 실수나 실패가 없었겠는가?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실수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성장 촉진제로 삼으셨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솔직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므로 울무에 걸린다.”고 늘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앞날을 걱정함답시고 여러 우려의 말들을 하지만, 나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교회다. 아무리 세상풍조가 갈리고 교회에 문화의 옷을 입히려 해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영적인 교회를 지향하며 마지막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목사님의 삶이 그러하고,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모형을 갖고 있는 정말 복이 많은 성도들이다. 그런 목사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길을 나선 것부터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다. 끝으로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님이 제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더 건강함으로 우리 곁에 더 오래 함께 계시길 바랄 뿐이다.

수령 전도사 한은택



봉우칼럼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이초석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까?” 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백문백답(百問百答), 천문천답(千問千答)이다 예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해외를 나가고 버터 주는 나의 건강도 예수에게서 왔고, 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나의 지혜도 예수에게서 왔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나의 능력도 당연히 예수에게서 왔다. 교계의 눈치 보지 않는 나의 자유도 예수에게서 왔고, 당당함과 담대함도 예수에게서 왔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예수에게서 왔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도 예수에게서 왔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나를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세상의 악한 나를 택하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으며, 세상의 천한 나를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고전 1:27-29).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백번 물어보소

의 나는 없다. 그리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의 나 역시 없다. 그래서 목회 29주년에 즈음하여 맞게 되는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뿐이고, 29년 동안 함께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 에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봉우 礎石

하나님의 사람은 별도 길을 인도한다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얻어
황금과 유랑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9~11절)

::성경에세이::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에 칠년을 수일 같이 여겼더라”(창 29:20). 야곱에게 그 세월은 힘들지도, 길지도, 지루하지도 않았네. 그가 그렇게 세월을 이긴 비결이 뭘 줄 아는가?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라헬을 얻겠다는 목적 말일세. 그 목적이식이 그를 세월보다 빠르게 달려게 했고, 세월의 바람을 이기게 했지. 어디 야곱뿐인가? 모세 또한 팔십 세에 사십의 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켜야 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네.

여보게!

내 나이 70을 바라보며, 청춘 못지않은 체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내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네. 죄에 파묻혀 있는 지구촌을 예수님 앞으로 대탈출시킨다는 확고한 목적이 나로 하여금 세월을 이기게 하지. 그래서 내겐 망년회가 없네. 다만 올해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슬한 계획이 있을 뿐이지.

거리에 나가보면 마치 크리스마스가 연말축제인양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네. 그럴 때면 나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마음을 다지게 되지. 그러니

세월을 주도할 밖에.

정말 올해도 숨 가쁘게 달려왔네. 뒤돌아볼 틈도, 아플 틈도, 감사에 젖을 틈도 없이 정말 열심히 달려네. 목적이 나를 흡입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해에 이렇게 설레는 까닭은 나의 목적이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네. 할 일이 있다는 것, 꼭 이뤄야 할 일이 아직 있다는 것이 내겐 소망이고, 기쁨이라네.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도 우울함이나 상실감이 파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인생을 긴 노래 한 곡이라고 생각해보세. 그러면 일 년은 노래 한 마디에 불과하다네. 그러니 한 마디 잘못 불렀다고 노래를 망쳤다 할 수 있나? 지금 우리가 노래의 어느 부분에 있는 한 마디를 부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노래의 뒷부분이 남아 있으니, 지금부터 협조 잘 섞어가며, 박자 제대로 지켜가며 마지막까지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마칠 때, 누군가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겠는가?

오늘 망년회 가려나? 어차피 잡힌 약속이라면 다녀오게. 그러나 망년회라 부르지도 말고, 송년회라 부르며 잊고 끝내는 해가 아니라 물 흐르듯 보내는 해라 부르게.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를 당당히 맞이하게나. 부른 희망을 안고!

朋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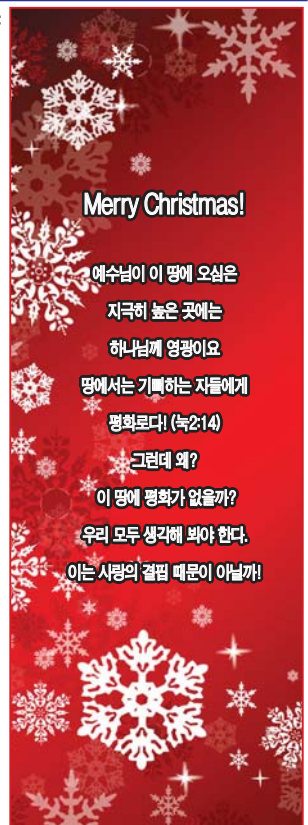


여보게!

또 한 해가 갔네. 허긴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는가.

세월이면 사람들 대부분이 망년회를 하지. 직장인들끼리, 지인끼리, 동창끼리 말일세. 한 해의 괴로움을 털쳐보자는 거겠지. 열두 달 힘들게 살았는데 술 한 잔 기울이며 모든 걸 잊어버리겠다는 심산이려니 하네. 그러나 나는 생각이 좀 다르네. 곧 가는 세월보다는 다가와 펼쳐질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네. 물론 유수 같은 세월이 야속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잡을 수 없다면 그 세월을 유유히 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네. 세월에 질질 끌려가는 건 내 성질상 맞지 않네.

나는 세월의 주인공이 된 사람을 성경에서 보았네. 바로 야곱이지.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살았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



::내가 본 이초석 목사님::

따뜻한 카리스마



1990년 8월 10일 금요일, 사람들은 가득 찬 실내 체육관은 후덥지근한 무더위에 땀 냄새, 발 냄새, 온갖 체취가 혼합되어

숨을 쉬기조차 괴로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1층에 깔린 헤지고 더러운 카펫에 비집고 들어가 앉아서 주위를 보니 어떤 사람은 앉아서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카펫에 토크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소리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프하게 생긴 중년신사가 하얀 양복을 입고 강단에 나오더니 “모두 일어서서 나를 보세요.”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며 손을 앞으로 내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우수수 넘어졌고, 내 앞에서는 아내, 장모님과 같이 나란히 서있던 처형

이 나무토막 쓰러지듯이 뒤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탐독했던 무술잡지와 중국 영화에서나 보았던 “장풍”이 내 눈앞에서 현실화 된 것을 보고 온 몸이 한겨울같이 오싹하였습니다. 한쪽 눈꺼풀이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는 원인모를 병에 걸린 처형을 위해 기도하자고 장모님이 인도하였는데, 나는 운전해 주러 왔다가 이렇게 이초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처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나의 모든 과학적 지식과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적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반면, 무너진 삶의 논리를 다시 일깨워 준 것은 다름 아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내 팔수에 파고들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변화시켰

습니다. 몇 시간의 피땀 어린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설교는 신선한 오아시스 물과 같이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켰고, 예배 때마다 새로운 설교말씀을 주신다는 기대감으로 다음 예배를 기대하는 설렘을 내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신다.”는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나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점이 보이면, 강단에서나 공식석상에서나 서슴없이 지적하고, 본인과 주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는 모습을 통해 이초석 목사님의 강한 리더십을 느낄 수 있었고, 한번 결정하면 어김없이 실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또한 평소 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후 20년이 지난 1월의 어느 토요일, 우리 교회 장모님이 골프를 치자고 초청하여 골프장에 갔는데, 무척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초석 목사님이 결혼 주례가 없는 모처럼의 토요일이라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날씨가 추

운데다가 목사님에 대한 강한 이미지로 평소 애워했던 나는 몸과 마음이 긴장으로 다 얼어 버렸습니다. “이 박사, 자네가 거동이 어려운 장모님을 10년간 휠체어로 모시는 것을 보고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네. 골프 같이 치게 되어 정말 반갑네.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잘 있는가?”라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는 내 몸과 마음의 추위를 확 몰아내기에 충분한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골프 치는 동안 아내 소탈하고 정감 있는 동네 아저씨처럼 부담 없이 즐겁고 기분 좋게 같이 보내면서, 목사님이 탁월한 기억력과 섬세함의 소유자이고, 마음이 따뜻하며 부드러운 분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성도에게는 따뜻함과 섬세함으로 교단을 이끌어 오신지 올해로 2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예루살렘 교단과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목회 29주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관섭 장로

아!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



목사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25년 전이었다. 우연히 보게 된 ‘성령의 역사’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다음 날 날

이 새자마자, 곧바로 예배를 드리는 올림피아공원 역도경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 예배의 현장에서 천국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곳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날 이후 우리 가정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어 보였고, ‘목사님처럼 살아가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

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대기업의 간부자리도 내팽개치고 승용차에다 비디오를 싣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그대로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매일 밤,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그분의 삶의 모습을 배워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의 모습이 그분의 전부는 아니었다. 낙담하여 로템 나무아래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 부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몰래 찾아오셔서 넘치는 축복 기도와 함께 큰 위로를 해주셨다. 그리고 목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하는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

하셨다. 그 뿐만 아니라 힘든 시절을 살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목사님의 숙소로 찾아가서 밤이 새도록 목사님을 괴롭힌 적이 있었다. 목사님은 힘든 내색 없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픈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기도 하셨다. 몇 해 전, 기도원 저녁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서저가 흥건히 젖은 만큼 많은 땀을 흘리시면서 예배를 드린 후였음에도, 젖을 먹이는 산모처럼, 목사님은 줄줄이 찾아오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어린 응대를 해주셨다. 당신 육체의 곤고함보다 교인들의 안녕과 건강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옛 성자의 모습과 오버랩 되어 가슴 한 편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어느 추운 겨울, 더운 나라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목사님이 시차와 온도 차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피곤해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휴식을 취해보실 것을 권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신의 대답

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분은 오로지 자녀 깨나 영혼구원의 열정에 목말라 계셨고, 그 간절함은 세월의 두께만큼 깊어간 가고 있는 듯했다.

예수중심의 성도로 산지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목사님도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여전히 25년 전 그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는 당신의 열정과 신앙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

아아! 우리 목사님!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외롭고 좁은 길만을 고집스럽게 가시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짧지 않은 긴 시간, 당신을 바라보면서 진정 당신의 사랑과 열정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자유 집사

::내가 매일 기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지난 한달 간, 내 입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온 찬송이다.

작년 가을, 우연한 계기로 참가했던 축제가 있었다. 제주도 올레 걷기 축제였는데, 트레킹이 지겹지 않게끔 곳곳에서 공연과 연주회가 열려 눈과 귀와 마음이 가뻐워지는 축제였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인지상정. 그래서 올해 1월부터 20여 명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 회비도 걷고, 올레 코스를 사전답사도 하고, 좀 더 저렴한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저가 항공사 사이트를 하루 간격으

로 들여다보았다. 제주도의 맛집을 뒤지고, 안락하면서 교통 환경이 좋은 숙소를 물색하고, 렌터카와 버스 대절 요금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한지 고민을 하고, 등등. 축제가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소풍가기 전의 어린 아이처럼 뽕뽕 설레기 시작했다.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를 미리 사두고, 첫 단체 여행을 기념하기 위한 수건도 제작하고 이제 출발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근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여행이 취소되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 솔직히 화가 많이 났었다. 화가 난 이유는, 여행 취소의 이

유들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납득이 되지 않아야 될 억울할 텐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 더 속이 상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한참을 울고 일어났더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뜻대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는 말씀도 기억이 났다.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억울함과 아쉬움을 털어내었다. “주님, 주님

이 보시기에 합당한 시기와 때에 꼭 다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여행을 가게 되었다.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그 여행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얻으며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 어디로 갔었는지, 누구와 갔었는지는 비밀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 동안 속상해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내 믿음의 나무는 한 층 더 자라날 것이라 확신한다.

전훈지